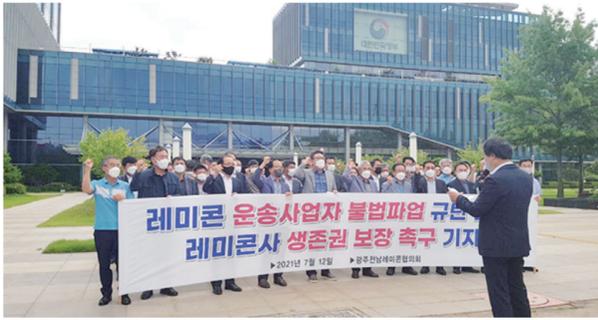


# 광주전남레미콘협회 “근로자 아닌, 운송업자 파업은 불법”



12일 광주전남레미콘협회의 회원사 대표들이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영광지역 레미콘운송사업자 장기파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레미콘협회가 레미콘 믹서트럭 개인 운송사업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사와 믹서트럭 운송 개인사업자 간 운송비 인상 문제 갈등으로 지난 5월 초순 시작된 파업이 2달 간 장기화 되면서 파

## 영광 레미콘 제조사-믹서트럭 운송업자 간 갈등 파업 길어지면서 피해 눈덩이...공권력 개입 촉구

해가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레미콘협회는 12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고용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 파업과 공장 진출입로 무단 점유 봉쇄로 레미콘 공장이 멈춰서고, 건설현장은 레미콘 납품 중단에 의한 공기 지연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불법파업으로 민·관수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되고, 레미콘 제조사와 구성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

협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며 “노동행정을 주관하는 고용노동청은 운송사업자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요청은 협의회가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파업을 불법으로 보기 있는데서 비롯된다.

협회는 “개인사업자인 운송사업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원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 민주노총은 운송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운송비 외에 퇴직금까지 지급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주장을 넘어선 위법적인 행위인 만큼 올바른 노동행정 개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불법파업 중인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을 거부한 채 공장 진·출입로를 2개월여 동안 무단 점유 봉쇄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업무방해와 교통방해로 고소를 했지만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불법파업 불풍으로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선량한 근로자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협의회는 “영광지역 레미콘 제조사에 실질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는 70여명에 그 가족은 300여명에 달하지만 개인사업자인 운송사업자의 불법파업으로 선량한 근로자들은 일터를 잃고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민주노총의 간섭 없이 운송사업자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운송비 인상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고용노동청이 적극 나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이후 12년 간 건설기계 운송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공급카드를 악용하는 레미콘 운송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선미기자

## 서울서 검사한 40대, 결과 통보 전 광주 대형병원 방문...뒤늦게 ‘확진’

### 병실 입원환자·보호자·의료진 등 격리 조치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40대 여성·음성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광주의 한 대형병원을 방문했다. 40대는 뒤늦게 감염이 확인됐다.

12일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동구의 한 대형병원을 찾은 40대의 코로나19 감염이 뒤늦게 확인돼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 밀접접촉자 1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40대는 서울 마포1888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광주지역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1일 마포구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확진자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광주

로 이동했으며 가족이 입원해 있는 대형병원에 오전 9시께 도착했다.

이후 병실에서 가족을 만나는 사이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 보건당국은 확진자 이송을 위해 1888번 확진자에게 연락을 했으며 광주에 머물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광주시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확진자는 가족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30여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건당국은 같은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 5명과 보호자 1명, 의료진 등 총 10여명에 대해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의료진 등은 음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비기자

## 여중생 불러 유사 강간...학원장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학원생을 성폭행한 혐의(유사 강간)로 학원 원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광주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중학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험

제점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을 원장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과 학원에 단둘이 남아있을 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의 피해 진술과 증거물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유나기자

## 50대 접종 사전예약 첫날 한때 먹통 당국 “시스템 다운 등 장애 없었다”

### 한때 접속 마비...다중접속제어솔루션 설치해 운영 중

50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 12일,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마비됐다. 현재는 접속은 가능하지만 대기 인원만 5만여명, 대기 시간은 30분에 달한다.

그럼에도 당국은 시스템에 장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12일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이전에 접속을 시도하면 현재 6만여 명의 대기 인원이 확인됐다. 예상대기 시간은 29분28초로 나타났다.

오후 1시 기준 현재는 대기 인원 없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다.

55~59세(1962~1966년생)는 이날 0시부터 사전예약을 했는데, 이날 0시에는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약 5분간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안선 백신 예약

시에도 접종 희망자가 다수 몰리며 예약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시스템은 중단 또는 다운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며 “다만 휴대폰 없이 원활한 접속이 가능하다. 0시부터 사전예약을 했는데, 이날 0시에는 홈페이지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약 5분간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안선 백신 예약

아닌 질병청 자체 기능 점검을 하면서 인지한 것”이라며 “예약 실적 역시 고르게 인입됐다”라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청은 “예약시스템 서버의 동시접속은 충분할 정도로 확충했다. 다만 1초 내 단위의 특정 시점에 수십만명 이상의 접속이 허용될 경우 서버 장애로 이어지는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접속 제어솔루션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 ‘광주 운암3단지 불법 철거’ 경찰 전방위 수사로

### 불법 재하도급·조합 관련 비위도 기초 사실관계 확인 중



광주시 북구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철거 공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과 조합 관련 비위 의혹 등도 들여다 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와 관련해 해체 허가 계획서를 어긴 철거를 강행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를 받는 대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철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12일 밝혔다.

앞서 광주 북구는 철거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여, 허

가 내용과 다르게 ‘하중 철거 전도’ 방식으로 해체 공사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 3곳과 철거 공정 하청사 1곳을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중 철거 전도’ 방식은 건물 아래 층 구조물 일부 또는 전부를 부수 넘어뜨리는 방식의 철거 공정이다. 지난 달 9일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당시 철거 공정과 유사하다.

경찰은 시공사로부터 철거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불법 재하철거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또 재건축 조합이 관련 이권에 개입,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도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